

몸을 위한 생명의 체험과 성장과 사역

(주일—오전 2부 집회)

메시지 8

몸 안에서 희생하는 생활을 하며 몸의 성장을 위해 몸에게 생명을 공급함

성경: 빌 2:17, 롬 12:1, 요일 5:16상, 고후 4:12, 엡 4:13-16, 골 2:19

I. 몸 안에서 우리는 희생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 롬 12:1.

A. 포도나무는 희생하시는 그리스도, 곧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리스도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 포도주를 산출하셨다 — 신 8:8, 삿 9:13, 시 104:15상.

1. 그리스도는 포도주 생산자로서, 그분 자신을 희생하시어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산출하신다. 포도나무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쁨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쁨을 산출하신다 — 삿 9:13, 시 104:15상.

2. 주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 롬 12:1, 엡 5:2.

a. 그러한 상황 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접촉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포도주를 산출하는 포도나무로, 곧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서 체험할 것이다 — 빌 3:1상.

b.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체험한 결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무언가를 산출하는 포도나무가 된다 — 삿 9:13.

3. 우리가 포도나무로 예표되신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분의 희생하는 생명을 체험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어 희생하는 생활을 살면서 다른 이들과 주님을 기쁘게 만드는 포도주를 산출하게 하실 것이다 — 롬 12:1, 엡 5:2, 고후 1:24.

a. 우리는 자신 안에서 희생하는 생활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타고난 생명, 이기적인 생명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고 그분의 희생하는 생명을 체험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고 우리를 강화시키시어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게 하실 것이다 — 마 16:25, 요 1:29, 20:22, 고전 15:45하, 6:17, 빌 4:13, 롬 12:1, 엡 5:2.

b.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하는 생명을 체험할수록, 더욱더 활력을 얻어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줄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것이다 — 고후 1:24, 5:13상.

B. 포도주를 산출하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새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짐으로써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전제(奠祭)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 창 35:14, 출 29:40-41, 빌 2:17, 딤후 4:6.

1. 전제는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쏟아 부어질 때까지 새 포도주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적시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마 9:17, 딤후 4:6, 창 35:14.

2. 전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되시고 우리가 희생하는 생활을 하신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정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체험한 것이다 — 빌 2:17, 딤후 4:6.

II. 우리는 몸 안에서 희생하는 생활을 할 때, 몸에게 생명을 공급한다 — 요일 5:16상, 롬 8:2, 6, 10-11, 엡 4:16.

- A.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몸 안에 있고, 몸을 통해 있으며, 몸을 위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생활은 몸 안에 있어야 하고, 몸을 통해 있어야 하며, 몸을 위해야 한다 — 엡 4:16.
- B. 몸은 지체들의 상호 공급에 의해 건축된다. 하나님은 각각의 모든 지체를 통해 몸에게 생명을 전달하신다 — 엡 4:16.
- C.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만을 몸에게 공급할 수 있다. 우리의 사역의 분량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결정된다 — 엡 4:15-16.
 - 1. 몸 안에서 유용한,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 안에 넣어진 그리스도이며, 오직 이러한 그리스도만이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다 — 엡 3:16-17.
 - 2. 우리가 몸에게 공급하는 것은 그리스도이고 몸이 받아들이는 것도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몸 안에서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 골 3:4, 10-11, 15-16.
 - 3.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것은 자동적으로 몸이 받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것이 바로 몸의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것을 전해주기 위해 분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요 1:16, 엡 3:2, 고후 12:9, 고전 15:10.
- D. 십자가가 있는 곳에 생명의 사역이 있다. 몸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길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삶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 고후 4:10-12.
 - 1.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라는 것은 몸의 변치 않는 원칙이다 — 고후 4:12.
 - 2.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거쳐 통과하도록 하신 것은 무엇이든, 자연스럽게 몸 안에 생명의 증가를 가져온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은밀한 가운데 통과한 것은 몸에게 생명을 공급하기에 충분하다 — 마 6:16-18, 골 3:3-4.
 - 3. 몸은 생명의 소통에 의해 공급을 받으며, 생명은 죽음이 우리 안에서 활동할 때에 몸에게 전달된다 — 고후 4:12.
- E. 우리는 바로 내적 실재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에게 생명을 공급한다. 성령은 참되고 실재적인 것만을 증언하실 것이다 — 요 16:13, 요일 5:6.
- F. 생명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몸을 섬기며 몸의 성장에 기여한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받은 생명이 몸 안으로 흘러갈 때, 몸의 신장의 분량이 증가한다 — 엡 4:13-14.

III. 우리는 몸의 성장을 위해 몸에게 생명을 공급해야 한다 — 골 2:19, 엡 4:15-16.

- A.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통로들로 사용하시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몸 안으로 흘러들어가고 지체들을 통해 몸의 분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 고후 4:12, 엡 4:16.
- B. 몸의 성장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에 달려 있다 — 엡 4:15-16.
 - 1. 몸은 머리를 붙들으로써 공급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란다 — 골 2:19.
 - 2. 몸은 머리로부터 자라나는데, 이것은 모든 공급이 머리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 엡 4:15-16.
- C. 몸의 성장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라시는 것, 곧 하나님께서 더해지시고 증가하시는 것에 달려 있다 — 골 2:19.
 - 1. 하나님은 주관적인 방식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성장하게 하신다.

2.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더욱더 더해지실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는 방식이다 — 고전 3:6-7.
 3. 오직 하나님만이 성장하게 하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자랄 수 없다 — 고전 3:6-7.
 - a.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더해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장이다.
 - b.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 롬 8:11.
- D. 몸의 성장이 몸의 건축이다 — 엡 4:16, 골 2:19.
1.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는 신약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관한 비밀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2.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증가하시는 것이며, 이러한 증가의 결과로 몸 스스로 몸을 건축하게 된다 — 엡 4:16, 3:17상
 - a.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들어오시어 그들 안에서 사실 때, 성도들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되신다 — 골 3:10-11.
 - b.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며, 그리스도의 몸은 이런 식으로 건축된다 — 골 1:18, 2:19.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전제

전제물의 씨는 창세기 35장에 뿌려져 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15장, 28장, 빌립보서 2장 17절,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읽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기본적인 제물들로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전제물로 드려야 함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포도주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 위에 기꺼이 전제물로 부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 이 체험은 깊고도 아주 주관적이다. 당신은, “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당신께 드려지는 그리스도 위에 제 자신을 전제물로 드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이렇게 말할지라도 당신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늘에 속한 포도주로 취하는 정도까지 그리스도를 체험함이 없다면, 당신에게는 기쁨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 전제물로 부어지려는 자원함도 없을 것이다. 교회생활 안에는 우리가 신성한 포도주로 적셔지고 나아가 포도주가 될 수 있는 정도로 그리스도를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오, 교회생활 안에서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스도 위에 전제물로 부어진다.

하나님은 포도주를 마시기를 즐기신다. 그분은 포도로부터 만들어진 포도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적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만들어지는 포도주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포도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포도주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이다. 내가 당신에게 장담하거니와, 교회 안에 있을 때 당신은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신성한 포도주가 되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그리스도 위에 기꺼이 부어질 수 있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베엘에서의 이스라엘의 반응이다. 나는 이후부터 지방 교회 안에 이 같은 많은 반응

들이 있을 것이라고 깊이 확신한다. 많은 귀한 성도들이 “주님, 저는 취할 정도로 당신의 기쁨으로 적셔져 있습니다. 저는 저의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기꺼이 부어지고, 심지어 순교하겠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바울이 이미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그리스도 위에 부어지고 있다고 말했음을 상기하라.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적셔져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스도께 부어지기를 기꺼이 원해야 한다.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기꺼이 전제물로 부어질 수 있는 정도까지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다.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79장, 1081-1082쪽)*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내가 전제로 부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하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라고 말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또한 자신을 전제물로 언급하고 있다. “나는 이제 부어지고 있으며,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다룬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관련되어 있고, 이것은 또한 2장 17절에 언급된 전제물에도 적용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이 우리가 전제물이 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체험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체험할 때 우리는 전제물이 될 것이다.

전제물로 조성됨

전제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에 제시된 기본적인 제물에 추가된 것이었다(민 15:1-10, 28:7-10). 기본적인 제물은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방면의 예표였다. 전제물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누리는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하늘에 속한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로 채워주는 제물이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포도주가 되게까지 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그러한 전제물이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는 이들의 믿음의 희생 제물 위에 자신의 피를 쏟음으로써 부어질 수 있었다.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은 기본적인 제물이지만 전제물은 그렇지 않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에 걸쳐 다루어진 다섯 가지 기본적인 제물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지신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의 예표들이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와 28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면, 전제물은 추가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기본적인 제물 중 하나가 전제물 없이 드려진다면, 이것은 기본적인 제물을 드릴 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음을 가리킨다. 기본적인 제물만을 드린 사람은 다소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사실상, 전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 자신이 전제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드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타고난 조성에 따라 그러한 전제물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적셔지며 침투될 정도로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늘에 속한 포도주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임으로 누릴 때, 우리는 그분으로 채워지고 철저히 그분으로 적셔질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 위에 전제물로 부어지는 포도주가 될 것이다.

구약에 있는 예표를 기초로 하여 바울은 자신을 믿는 이들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제사장의 봉사 위에 부어질 전제물로 여기게 되었다. 수년 동안 바울은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적셔질 정도로 그리스도를 마시고 누렸다. 결국 하늘에 속한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바울의 존재는 포도주의 성분으로 조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물 위에 전제물로 부

어지는 포도주라고 여길 수 있었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130-131쪽)

생명을 공급함

오늘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높은 뜻은 생명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며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이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 앞에 두신 목표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얼마나 보배로운지! 십자가가 자신 안에 있는 타고난 생명을 철저히 처리하도록 한다면, 각 지체는 그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온몸의 생명의 분량을 높일 수 있다. 이 몸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자. “주님, 제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당신의 몸을 약하게 하는 모든 것을 파쇄하여 주시고, 당신 자신의 확장을 위하여 저로 하여금 이전에 아직 만져 보지 못한 생명의 영역을 만지게 하소서!”

우리는 이미 고린도후서 4장에서, 한 곳에서(10절의 ‘몸에’와 12절의 ‘우리 안에서’) 작용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그분의 부활을 두 곳에서(10절의 ‘우리 몸에서’와 12절의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게 하는지를 보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열매 맺는 생명과 열매 맺는 사역을 보게 되는데, 물론 이들은 결국 하나이며 나타나는 장소가 다른 것에 불과하다. 첫 번째 상황에서 생명은 죽음이 활동하는 곳에서 나타나고, 두 번째 상황에서 생명은 다른 곳에서 나타난다. 나는 나의 몸에 나타나는 것을 생명이라 칭하고, 다른 사람의 몸에 나타나는 것을 사역이라 칭한다.

십자가가 없으면 생명이 없고 생명의 사역도 없게 된다. 고통을 받는 목적은 완전하고도 풍성한 사역을 위해서이다. 이론이 이것을 대처할 수 없다. 사역의 궁핍함은 쉬운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느슨하게 세월을 보내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 거의 없다. 그들은 사람들의 필요를 알지 못한다. 물론 나는 우리가 스스로 번거로움을 자초하거나 자신의 몸을 가혹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영 자신은 우리의 체험을 책임지신다. 그 영은 우리의 사역이 풍성해지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 혹은 영의 각 방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신다. 우리의 책임은 다만 따라가는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내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몸에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느냐고 물을 것이다. 많은 일을 하려고 결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지도 말며, 평상시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단순히 십자가가 운행하도록 하라. 말씀을 통해서나 일을 통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활동이나 말하는 것이 금지될 때, 그들은 자신에게 사역이 없어졌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당신의 사역의 분량은 당신이 활동하는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음’으로 당신 안에서 활동하게 하라. 그러면 생명이 다른 사람의 몸에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고후 4:12)라는 말씀은 몸의 변치 않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방면에서 몸의 성장을 가져오도록 특별히 수고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당신으로 거치게 한 것은 자연스럽게 확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또한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의 체험을 간증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기꺼이 죽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실재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며 사람의 전달은 필요가 없다. 우리가 ‘신언을 떨시’(살전 5:20)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몸 안의 사역이 말하는 것이나 간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신한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며 통과한 것은 그분의 지체에게 생명을 공급하기에 족하다. 우리가 만일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받는 이야기를 알리지 않아도 그 고난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자라게 한다. 우리가 받은 고난을 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일 뿐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의

미움을 사기도 한다.

만약 당신이 한 형제를 용서했다면, 당신이 표출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이 용서한 실재는 몸에 생명을 공급할 것이다(물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아마 당신에게 무언가를 표명하기를 요구할 것이다). 당신이 참으로 한 형제를 사랑한다면 비록 당신이 그 형제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은 몸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 나는 영국의 어느 큰 모임에 참석했는데, 객원으로 강단에서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나는 한 일본 형제도 그 강사 중의 한 명이라는 것을 몰랐었다. 우리는 만나 본 적도 없었고, 그 당시는 중일(中日) 전쟁 중이었다. 우리는 다만 짧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을 뿐, 나는 그 형제의 느낌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말을 할 때 주님 안에 있는 형제의 사랑과 교통을 느꼈으며, 이 사랑은 국적의 장벽을 초월했으며, 또한 통역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스도의 몸이 공급을 얻는 것은 먼저 말하는 것과 일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안의 실재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령께서 관심하시는 것은 진실된 일이며 그분은 절대로 거짓된 일을 위해 증언하지 않으신다. 당신이 말로 전달한 것은 당신이 이미 교회에게 가져다 준 그리스도에 불과하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몸은 생명의 교통을 통해서 공급을 얻는다. 죽음이 우리 몸에 활동할 때 생명은 아주 간단하고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 그러므로 문제는 당신이 한 것이나 말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손아래서 통과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이다.

몸의 하나의 기초를 떠나서는 참된 사역이 없다. 당신은 이 사실을 보기 전까지 자신이 어떻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관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받으면 몸이 즉각 얻게 된다는 것을 안다. 당신이 소유한 것은 곧 몸이 소유한 것이므로, 당신이 힘을 들여 전달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교회를 건축하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교회가 당신 안에서 건축되도록 해야 한다. 당신이 머리로부터 받은 것은 그분의 몸인 교회가 자연히 얻게 된다. 당신이 무엇을 받지 않았다면 교회는 절대로 당신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가 없다. 받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역의 문제도 해결된다. 받는 문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다. *(위치만 니 전집, 40권, 157, 176-179쪽)*